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693>

JCCT 2024-5-78

간호대학생의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 간호전문직관 및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간의 관계분석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Internet ethics awareness, self-control,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and patient privacy protection awareness

김외남*, 오재우**, 김정희***

Oe Nam Kim*, Jae Woo Oh**, Jung Hoe Kim***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 간호전문직관 및 환자개인정보보호 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환자개인정보 보호 인식 향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대전광역시와 청주시 소재 D대학교 및 C대학교에 재학중이며 본 연구에 참여 동의한 간호대학생 142명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통제력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4%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간호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 간호전문직관,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ethics, self-control,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atient privacy awareness among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nd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atient privacy awareness improvement programs reflecting the flow of information age.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November 20 to December 15, 2023. The questionnaires of 142 nursing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nd were enrolled in D and C universit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Cheongju City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control were the influential factors on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patient privacy.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24%. I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patient privacy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promote the ethical awareness of internets and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increase nurs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 Nursing students, Internet ethics, Self-regul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Patient privacy awareness

*정희원, 순천제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희원,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정희원, 순천제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공동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17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17, 2024 / Revised: April 10, 2024
Accepted: April 20, 2024
**Corresponding Author: oiw77@konyang.ac.kr
Dept. of Nursing, Konyang Univ, Korea

1. 서 론

오늘날 보건의료시스템은 정보화 시대에 맞춰 수많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하여 전문 의료인들이 의료를 시행함에 있어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정보는 의료제공을 위해 진료 등을 통해 얻어지는 환자의 건강상태 정보로써[1], 정보 특성상 전문적이고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침해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2]. 최근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와 Social Network Service(SNS) 이용자수의 증가와 함께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수집과 전달과정에서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과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3,4]. 병원 내 모든 의료종사자 중 간호사는 매일 환자와 오랜 시간 접촉하면서 환자개인정보를 자주 접근, 활용하고 있기에 의료정보보호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5,6]. 그에 반해 간호대학생들은 실습하는 기간에만 환자 개인정보를 다루기에 환자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낮으며[7] 최선영 등의 연구[8]에서 병원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 중 간호대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이 보고되었다. 간호학교육에서의 병원 현장실습은 한 사람의 의료인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지만[9] 간호대학생들은 실습기간 동안 환자 의료정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기회가 있기에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10-12]. 이에 온라인 상 넘쳐나는 정보를 배경으로 의료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의료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윤리의식을 포함하여[13]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윤리의식이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개념으로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 체계라 할 수 있다[14]. 인터넷 윤리의식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정보윤리의식이 높아질수록 간호정보역량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5], 이에 간호정보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의식의 함양이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15,16]. 그러나 이상실습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다루는

예비 의료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의식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기통제력은 미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자신과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를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환경에 적응시키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17]. 이러한 자기통제력이 발달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욕구를 인내할 수 있으며, 분별력과 조심성을 지니며, 인지된 타인의 욕구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미래의 의료인이 될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요인이다[13,18]. 선행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은 사이버 불링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이버 비행 또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이는 정보의 역기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내적 통제요인이기도 한 자기통제력[20]은 자신의 태도를 통제하고 조절의 중요성을 논하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21]. 그러나 미래의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을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써 책임, 의무와 같은 윤리적 측면이 강조된다[22]. 윤리적 측면에서의 간호전문직관 이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을 지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신념과 가치관을 말하며[23] 이론과 실습을 통해 확립되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확장된다[24]. 특히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은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며,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 간호사 윤리강령, 의료법을 통해 환자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포함한다[25]. 문미영[5]의 연구에서도 간호전문직관이 확립될수록 의료정보 보호 인식이 높아지기에 간호대학생 대상의 간호전문직관과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과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 환자개인정보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나 예비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 간호전문직관 및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 간호전문직관 및 환자개인정보보호 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환자개인정보 보호 인식

향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 간호전문직관 및 환자개인정보보호 인식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S 대학교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 참여를 희망한 학생을 설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본수결정은 G*power 3.1.9.7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예측변수 4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5%를 적용했을 때 추정되는 최소 표본 수는 129이었고, 탈락률 10%를 고려한 142명이다.

3. 연구도구

1) 인터넷 윤리의식

인터넷 윤리의식 측정도구(Internet Ethics Awareness Scale)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추병완(2009)이 개발한 대학생용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인터넷 윤리의식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자율 6문항, 존중 6문항, 책임 6문항, 참여 6문항으로 역문항(7문항)은 역 환산 처리할 예정이다. 모든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윤리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추병완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5$ 이었다.

2)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 측정도구(Brief Self-Control Scale: BSCS)는 Tangney 외(2004)의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BriefSelf-Control Scale: BSCS)를 홍현기 외(2012)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자제력 7문항과 집중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문항(9문항)은 역 환산 처리할 예정이다. 모든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Tangney 외(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홍현기 외(2012)에서는 Cronbach's $\alpha=.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 이었다.

3) 전문직관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윤은자 등(2005)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5가지 영역의 총 26문항으로, 사회적 인식 8문항(최소8, 최대40), 간호의 전문성 5문항(최소5, 최대25),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최소9, 최대45), 간호실무역할 4문항(최소4, 최대20), 간호의 독자성 3문항(최소3, 최대15)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간호의 독자성 영역 3문항은 역문항으로 계산되고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은자 등(2005)의 개발 당시 전체 Cronbach's α 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3$ 이었다.

4) 환자개인정보보호인식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이미영, 박영임(2005)이 간호사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김창희 등(2013)이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과 실천 2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식 분야만 사용할 예정이다. '인식' 관련 문항은 3개 영역, 총 23문항이며 의사소통영역 9문항(최소9, 최대45), 연계업무영역 3문항(최소3, 최대15), 환자 정보관리영역 11문항(최소11, 최대55)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미영, 박영임, 2005), 김창희 등(2013)에서의 인식 측정도구

Cronbach's α 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7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전 연구 진행에 관하여 K대학 기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2023-10-021)을 받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 간호학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 학과 게시판을 통한 모집 공고문을 통해 연락받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한 연구대상자에게 설문링크 제공 후 연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코드화 및 암호화하여 3년간 보관 후 영구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 전문직관 및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정도 차이는 t-test, ANOVA로 통계분석하였다. 또한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 전문직관 및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간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환자개인정보보호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통계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의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113명(79.6%), 연령은 29세 이하가 133명(93.7%), 학년은 3학년이 101명(71.1%)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전공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9명(41.5%)매우만족

40명(2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과 지원동기는 높은 취업률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0명(56.3%)로 가장 높았다. 학업 성취도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0명(49.3%), 자신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5명(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무교라고 응답한 경우가 90명(6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우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만족 56명(39.4%), 매우 만족 49명(34.5%), 보통 30명(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1>.

2. 간호대학생의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과 간호전문직관 및 환자개인정보보호인식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인터넷 윤리의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02점, 자기통제력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3.44점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의 경우 5점 만점에 3.68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3.98점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Table 2>.

표 2. 간호대학생의 인터넷윤리의식, 자기통제력과 간호전문직관 및 환자개인정보보호인식의 정도
Table 2. Nursing students' Internet ethics, self-regul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atient privacy awareness.
(N=142)

Variables	Mean±SD	Range
Internet ethics	3.02±0.32	1-4
Self-control	3.44±0.75	1-5
Self-control	3.35±0.79	
Focus	3.59±0.79	
Nurse Practitioner	3.68±0.55	1-5
Specialization in nursing	3.91±0.70	
Nurse Practitioner Trade	3.87±0.70	
Professional self-concept	3.85±0.67	
Social awareness	3.57±0.72	
Independence in nursing	2.87±1.01	1-5
Patient Privacy Awareness	3.98±0.71	
Communication Area	3.97±0.72	
Business Area	3.82±0.83	
Patient Information Management Area	4.02±0.74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개 정보보호인식의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patient privacy awareness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udienc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N=142)

Variables	Categories	No (%)	Protecting Patient Privacy Recognition	
			Mean±SD	t/r F (p)
Gender	Female	113 (79.6)	3.95±0.70	0.58 (.448)
	Male	29 (20.4)	4.07±0.76	
Age	29<	133 (93.7)	3.98±0.70	0.15 (.862)
	20~29	2 (1.4)	3.98±1.20	
	30>	7 (4.9)	3.83±0.94	
Grade	3	101 (71.1)	3.93±0.72	1.63 (.204)
	4	41 (28.9)	4.10±0.69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40 (28.2)	3.87±0.75	0.58 (.631)
	Satisfied	59 (41.5)	4.05±0.69	
	Usually	35 (24.6)	3.94±0.76	
	Dissatisfied	8 (5.6)	4.10±0.54	
	Very dissatisfied	-	-	
Academic Motivation	High employment rates	80 (56.3)	3.89±0.70	1.13 (.340)
	Aptitudes and hobbies	35 (24.6)	4.15±0.67	
	Solicitation	24 (16.9)	4.00±0.79	
	Grades	3 (2.1)	4.09±0.94	
Academic achievement	Very good	21 (14.8)	3.91±0.76	1.58 (.184)
	Good	35 (24.6)	4.14±0.56	
	Usually	70 (49.3)	3.87±0.76	
	poor	13 (9.2)	4.27±0.66	
	Very poor	3 (2.1)	3.77±0.69	
Your health	Very healthy	26 (18.3)	3.85±0.74	0.89 (.472)
	Healthy	55 (38.7)	4.00±0.72	
	Usually	44 (31.0)	3.96±0.67	
	Weak	15 (10.6)	4.06±0.78	
	VERY Weak	2 (1.4)	4.76±0.92	
Religion	Buddhism	7 (4.9)	3.35±0.56	2.22 (.070)
	Christianity	27 (19.0)	4.10±0.74	
	Catholicism	17 (12.0)	3.91±0.58	
	Unaffiliated	90 (63.4)	3.99±0.67	
	etc	1 (0.7)	5.00±-	
Friendships	Very satisfied	49 (34.5)	3.90±0.76	0.47 (.758)
	satisfied	56 (39.4)	3.99±0.63	
	Usually	30 (21.1)	4.08±0.81	
	Slightly dissatisfied	5 (3.5)	3.81±0.73	
	Dissatisfied	2 (1.4)	4.24±0.40	

3. 간호대학생의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 및 간호 전문직관과 환자개인정보보호인식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 간호전문직관 및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다. 환자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인터넷 윤리의식($r=.54, p<.001$), 자기통제력($r=.32 p<.001$), 간호전문직관($r=.46,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3 간호대학생의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 및 간호 전문직관과 환자개인정보보호인식간의 관계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Internet ethics awareness, self-regul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atient privacy awareness.

(N=142)

Variables	Internet ethics r(p)	Self-control r(p)	Nurse Practitioner r(p)	Patient Privacy Awareness r(p)
Internet ethics	1			
Self-control	.54 (<.001)	1		
Nurse Practitioner	.47 (<.001)	.39 (<.001)	1	
Patient Privacy Awareness	.25 (<.001)	.32 (<.001)	.46 (<.001)	1

* $p<.05$ ** $p<.01$ *** $p<.001$

4. 간호대학생의 인터넷 윤리의식과 자기통제력 및 간호전문직관이 환자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인터넷 윤리의식과 자기통제력 및 간호전문직관이 환자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변수를 독립변수로 지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 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1.972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자기 상관이 없이 독립적이었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요인)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1.000~1.178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데이터

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3.32, p<.010$), 간호대학생의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통제력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4%였다<Table 4>.

표 4 간호대학생의 인터넷 윤리의식과 자기통제력 및 간호전문직관이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Internet ethics and self-regul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patient privacy awareness.

(N=142)

Variables	B	SE	β	R ²	Adj. R ²	t	p
(Constant)	2.08	.37				5.62	
Nurse Practitioner	.701	.10	.54	.214	.209	6.83	<.001
Self-control	-.198	.08	-.21	.251	.240	-2.62	.010

R²=.251 Adj.R²=.240 F=23.32 p=.010

IV.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 간호전문직관 및 환자개인정보보호 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환자개인정보 보호 인식 향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인터넷 윤리의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02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김소연[26]의 3.00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인터넷 윤리의식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난 결과는 임상실습 전 정보관리 방법과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등이 오리엔테이션시 진행됨으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예비 간호사가 된 간호대학생은 본인 스스로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인지[27]하고 있음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되므로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환자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시 인터넷 공간에서 간호사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 및 지식 등에 대한 교

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통제력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3.44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김미숙과 손수경[28]의 3.42점 및 김소연[26]의 3.42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력이란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점검하며,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복잡한 인지적 조작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김미숙과 손수경[28]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된다고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대상의 경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기통제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자기통제력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29]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래 의료인이 되어 하지말아야 할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한 간호대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므로 이를 증진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의 경우 5점 만점에 3.68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박현경[30]의 3.63점 및 문미영[5]의 연구결과 3.68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Keeling과 Templeman[31]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을 통해 전공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과 실무사이을 연결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 전문직관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들로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직 사회화 과정이 진행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와 간호를 담당함에 있어 간호활동 과정 및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의식적인 견해[24]로 임상실습을 통한 간호전문직관 확립의 중요성은 임동영과 장현정[32]의 연구에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하여 병원과 학교에서의 교육과 직접적인 지지를 통해 간호사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3.98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현경[30]의 연구결과인 4.31점 및 강혜민 등[12] 연구의

4.35점, 이현정[6]의 연구결과인 4.39점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송영신 등[7]의 연구에서 환자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사항이기에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평균 점수가 5점이 되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환자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환자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인터넷 윤리의식($r=.54, p<.001$), 자기통제력($r=.32, p<.001$), 간호전문직관($r=.46,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식은 간호정보역량과 간호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박현경[30]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환자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로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정보를 다루는 이해관계인 의료인과 정보 주체인 환자와의 이해와 신뢰가 중요하다[33]. 그렇기에 간호사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 때부터 인터넷 윤리의식 및 자기통제력을 함양하고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통제력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4%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의 영향요인이 간호정보역량, 간호전문직관 및 환자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이라고 한 박현경[30]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또한 문미영[5]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이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와 함께 이은주 등[10]의 연구에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이 주요 요인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알게 되거나 얻게 되는 환자의 정보를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노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간호전문직관이 정립될 수 있는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 자기통제력이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 간호전문직관 및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인터넷 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이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간호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의식, 자기통제력, 간호전문직관 및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의 영향요인이 인터넷 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임을 확인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일부 지역 및 소수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지역과 간호대학생의 표본수를 확대하여 반복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간호전문직관과 인터넷 윤리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K.S. Yim, J.G. Kim, "Researching RBAC Protocols in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s",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ol. 16, No. 7, pp. 77-84, 2016. <https://www.riss.kr/link?id=A103117547>
- [2] Y.C. Jeong, Y.L. Le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ertific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5,

2013. <https://www.riss.kr/link?id=A103530478>
- [3] H.J. Lee. "Problems and Solu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Medical Area",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ol. 20, No. 2, pp. 267-293, 2012. UCI : G704-001448.2012.20.2.010
- [4] H.N. Kim, Y. Lee, G.H. Kim, J.C. Lee, P.S. Lee, "How we manage and protect personal health information", A study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Health Policy Institute, pp. 1-143, 2013.
- [5] M.Y. Moon,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Moral Behavior and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warene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9, pp. 1171-1191, 2020. <https://www.riss.kr/link?id=A106830292>
- [6] H.J. Lee,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Patient Priv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7, No. 5, pp. 59-65, 2017. DOI : 10.22156/CS4SMB.2017.7.5.059
- [7] C.H. Kim, S.Y. Jung, Y.S. Song, "Nursing student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patient priv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1, pp. 479-490, 2013. UCI : G704-002010.2013.11.11.037
- [8] S.Y. Choi, D.Y. Lim, Y.S. Go, I.O. Moon, "Perception and Performance about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llied Health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1, pp. 83, 2016. DOI : 10.5977/jkasne.2016.22.1.83
- [9] H.J. Kim, J.S. Huh, "The Right of the Clinical Training for the Medical Students and Privacy of the Patients",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ol. 21, No. 2, pp. 107-123, 2013. UCI : G704-001448.2013.21.2.006
- [10] E.J. Lee, H.S. Shin, E.C. Ha, "Factors Influencing Patient Privacy Protec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4, No. 3, pp. 225-234, 2018. DOI : 10.5977/jkasne.2018.24.3.225
- [11] G.Y. Seoung, D.S. Kim, M.Y. Han, E.Y. Gwak, ... & S.M. Han, "Relationships between patient privacy act, nursing ethic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Social Science Review*, Vol. 10, pp. 267-288, 2011. UCI 1410-ECN-0102-2012-300-003290575
- [12] H.M. Kang, B.M. Kim, J.K. Kim, E.S. Jung, J.E. Lee, S.J. Hwang, E. Go, "Ethical Values, Patients'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wareness and Practi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ing & Health Issues*, Vol. 25, No. 1, pp. 1-9, 2020. <https://www.riss.kr/link?id=A106807755>
- [13] D.J. Kang, S.Y. Jeon,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internet ethics awareness in healthcare-relat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8, No. 2, pp. 261-270, 2017. DOI : 10.7465/jkdi.2017.28.2.261
- [14] B.Y. Chu, "Internet Ethics Self-Assessment Test Results", *Internet Ethics, Internet Ethics Action Council*, Vol. 2, pp. 54-59, 2009.
- [15] J.M. Lee, S.J. Hong, "The Effect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Social Network Services Addiction Tendency,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and Information Ethics Index on Perception on Patien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Korean Academy of Basic Medicine & Health Science*, Vol. 15, No. 2, pp. 159-165, 2022. <https://www.riss.kr/link?id=A108400860>
- [16] E.Y. Kim, K.S. Lim, "Awareness and Practice of Patients'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of Nursing Students",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ol. 17, No. 5, pp. 121-132, 2017. <https://www.riss.kr/link?id=A105521684>
- [17] J.P. Tangney, A.L. Boone, R.F. Baumeister,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Taylor and Francis*, Vol. 19, pp. 173-212, 2004. <https://doi.org/10.1111/j.0022-3506.2004.00263.x>
- [18] Y.S. Ryu, C.S. Ha,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s' Behavioral Control and Self-Control of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7, No. 2, pp. 197-216, 2016. DOI : 10.15703/kjc.17.2.201604.197
- [19] P.R. Seoul, S.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yberbullying T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Contro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1, No. 11, pp. 576-585, 2021. DOI : 10.5392/JKCA.2021.21.11.576
- [20] S.S. Lee, S.H. Jeon, J.S. Lee, "The Effect of

- Patriarchal Family on Distribut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and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Punishment and Self-Control as Main External and Internal Control Factors”,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Vol. 19, No. 1, pp. 93-108, 2022. DOI : 10.25023/kapsa.19.1.202202.93
- [21] M.H. Park, J.H. Park, “Relationship among Self-Control, Physical Activity, Internet Addiction, Cyber Ethnics, and Cyber Delinquen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2, pp. 7101-7109, 2014. DOI : 10.5762/KAIS.2014.15.12.7101
- [22] Y.K. Kim, M.Y. Jeoung,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mpus Environment on the Perception of Ethic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 1, pp. 115-124, 2019. DOI : 10.5977/jkasne.2019.25.1.115
- [23] E.J. Yeon, Y.M. Kwon, O.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DOI : 10.4040/jkan.2005.35.6.109
- [24] M.J. Schank, D. Weis, “Service and education share responsibility for nurses’ value development”, Journal for Nurses in Staff Development, Vol. 17, pp. 226-233, 2001. DOI: 10.1097/00124645-200109000-00002
- [25] Y.J. Bae, S.Y. Lee, “A Study of Student Nurses’ Knowledge and Awareness about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p. 1, pp. 36-44, 2016. DOI : 10.5762/KAIS.2016.17.1.36
- [26] S.Y. Kim, “ The Effect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ternet ethics awareness, Self-control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2023. <https://www.riss.kr/link?id=T16802333>
- [27] .I. Cha,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Information Ethics Index & Patients’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wareness and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2017. <https://www.riss.kr/link?id=T14531746>
- [28] M.S. Kim, S.K. Seon, “Relationships between Self-Control and Addictive Mobile Phone Use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1, pp. 6719-6727, 2014. DOI : 10.5762/KAIS.2014.15.11.6719
- [29] H.G. Hong, H.S. Kim, J.H. Kim, J.H. Kim, “Validity and Reliability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rief Self-Control Scale(BSC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31, No. 4, pp. 1193-1210, 2012. UCI : G704-001037.2012.31.4.010
- [30] H.K. Park, “Effects of nursing students’ social media addiction, nursing information compet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patient privacy percep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2021. <https://www.riss.kr/link?id=T15896077>
- [31] J. Keeling, J. Templeman, “An exploratory study: student nurses’ perceptions of professionalism”,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13, No. 1, pp. 18-22, 2013. DOI: 10.1016/j.nepr.2012.05.008
- [32] D.Y. Lim, H.J. Jang, “The Relationship with the Knowledge, Confidence in Performanc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on Patient Safety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4, pp. 279-289, 2018. DOI : 10.5392/JKCA.2018.18.04.27
- [33] J.S. Kim,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Focusing on US HIPPA/HITECH research”,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4, pp. 269-290, 2016. <https://www.riss.kr/link?id=A101953247>

※ 이 논문은 2023년도 순천제일대학교 교내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